

미군의 오늘을 필리핀에서 보다

정명희(SONAM)

KOREAN NGOS ASIAN CENTER 3기 연수생

녹색연합

1. 시작하며

2. 필리핀과 미국 - 그 불평등의 역사

속임수의 시작 - 미국의 필리핀 점령

새로운 식민지 - Bell 협정과 MBA

3. 필리핀의 미군기지

수빅 해군 기지(Subic Naval Base)

클락 공군 기지(Clarck Air Base)

4. 필리핀 민중의 승리 - 미군기지 철수

기지철수 결정 과정

주요 쟁점과 이슈

폭발적인 미군기지 반대운동

5. 미군이 남기고 간 재앙

죽음의 우물 - 클락의 비극

클락의 희생자들을 만나다

아름다운 수빅만의 진실

전 기지노동자들의 증언

수빅과 클락의 독극물 오염에 관한 연구

6. 환경정의를 위한 투쟁 - CLEAN UP US BASES!

미국의 가장 큰 오염자, 미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희생자들의 권리 찾기 - Alliance Bases Clean Up

7. 맺으며 - 끝나지 않은 싸움

다시 돌아온 미군

수빅과 클락의 오늘

한반도의 미군기지

희망을 일구며

1. 시작하며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도 ‘미국과 미군’ 이다. 포로들을 학대하고 이라크 새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라크를 위해 떠나지 않겠다는 미군의 발표는 이제 더 이상 낮설지 않다. 그 이유와 과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상된다. 단지 지금 그 일들이 ‘이라크’ 에서 일어날 뿐이지 미군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반복되었고 57년 전, 아니 100여 년 전 이곳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러한 제국주의의 모습을 미국은 필리핀을 통해 제대로 연습하고 배웠는지도 모른다.

세계 평화를 위하고, 세계 사회를 테러나 독재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서 미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침략 전쟁을 직접 벌이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독재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 일은 이라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평화를 세계시민사회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오늘날, 미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필리핀의 현재 모습 -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 필리핀에 주둔해 있던 미군기지, 기지가 떠난 후 발생한 참혹한 환경재앙, 재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 다시 필리핀에 돌아오려고 시도하는 미군- 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필리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미국과 미국의 지배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나라들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군이 있는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애초 나의 주제였다. 이 주제는 나에게도 내가 몸담고 있는 녹색연합에도 생소한 이슈는 아니다. 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를 오래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다뤘었던 녹색연합에선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과 교류가 있었고 2004년부터 수빅 클락에서 일어난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녹색 아시아를 위한 만원계’ 를 만들고 있었다. 또한 1,2기 아시아센터의 녹색연합 연수생들과 관련 단체 사이의 교분도 있는 상태였다. 새로운 주제를 찾기 보다는 이미 연결된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정도의 쉬운 생각으로 나는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면서 점점 더 알아야 하고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졌다. 관심은 환경문제에서 시작하여 미군 주둔부터 철수과정, 당시의 반대운동, 여러 사회문제 등등으로 한없이 펼쳐져 나갔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긴 하였지만 한 가지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 제대로 느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 주긴 하였지만 나의 짧은 영어와 이해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웠다. 특히 PTFBCU(Peoples Task Force for Basas Clean Up 이

하 미군기지정화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뮐라 발도나도(Myela Baldorado)는 필드워크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미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의 자료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고 수빅과 클락을 안내해 주었으며 몇 차례의 강의까지 해 주었다. 서툰 영어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그녀는 훌륭한 스승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20여 년이 넘도록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모습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본보기였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나에게 경험을 나눠준다는 그녀의 말은 내내 나를 따라 다녔다. 뮐라 발도나도와 함께 수빅, 클락의 활동가들도 현장에서 아낌없이 나를 도와 주었다. 그들의 바람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보고서가 한반도에서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필리핀과 미국 - 그 불평등의 역사

필리핀에 도착한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풍경은 여느 아시아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아닌 훨씬 더 보편적인 서양문화다.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던 다양한 부족들의 섬이었던 이곳에 1521년 마젤란 일행이 도착하고 1565년 스페인 식민지가 된 이래 필리핀의 언어, 종교, 정치 등 모든 사회체계는 서구문화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더구나 189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식민지 통치동안 근대국가, 교육 체계가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문화를 필리핀 사회에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미국문화는 이미 뿌리 깊게 전파되어 있지만 필리핀의 그것은 식민지와 뒤이은 50여 년의 미군 주둔이 낳은 결과다.

속임수의 시작 - 미국의 필리핀 점령¹⁾

미국의 필리핀 점령 과정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과정의 교과서와도 같다. 미국 이전의 제국주의국가들이 보여준 무력진압 일변도의 지배가 아닌 '해방군, 친구, 자유, 민주주의, 독립국'의 얼굴을 한 채 접근한 뒤 결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온갖 불평등한 제도들을 만들어 경제를 지배하는 전 과정은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미국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이 과정은 비단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차지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게 점령당한 필리핀을 독립시킨(?)뒤 다시 철저한 종속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스페인 식민 시절 당시 미국은 필리핀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자를 자처했다. 홍콩에 망명 중이었던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아기날도를 비롯해 필리핀 혁명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필리핀 독립운동가들은 미국이 이미 스페인과 명분을 얻기 위한 모의전쟁

1)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정의 주요 역사적인 상황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권오신, 문학과 지성사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 책에는 당시 필리핀인들의 독립운동 전 과정과 미국의 식민지 통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1898년 8월 13일)을 치르고 항복 선언을 받기로 약속했을 때까지도 미국이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스페인의 항복 이후 미국과 스페인만 참여한 파리회담에서 미국은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그동안 스페인이 필리핀에 이뤄놓은 많은 발전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 필리핀을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필리핀인들에게는 비밀리에 부쳐졌고 미국은 ‘제국주의에 반대’ 하며 잠시 동안 필리핀을 재건하기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필리핀에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미 1898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던 당시 미국 대통령 매킨리의 필리핀에 관한 미국정책에 대한 최초의 포고문 “호의적인 동화 benevolent assimilation”조차도 1899년 1월 4일에서야 통치권 등의 용어들은 축소된 채 필리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곧 이 포고문의 원문이 미군 장교의 실수로 공개되자 필리핀은 다시 독립전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1899년 2월 4일 마닐라 시의 산후안 다리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의 총격전을 시작으로 1902년 4월까지 진행된 3년간의 필리핀 독립 전쟁은 당시 루손 섬 시민 6분의 1가량이 이 기간 동안에 죽었다고 하는 끔직한 결과를 낳았다.

전쟁기간 동안 보여준 미군들의 잔혹함 역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미군들의 이라크 병사들에 대한 학대나 시민들에 대한 횡포와 별로 차이가 없다. 사마르 섬 지방에서는 대부분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고 맥아더 장군은 포로들을 미군병사들의 과녁 맞추기 연습용으로 이용하게도 하였다. 1901년에는 사마르 지역에서 미군들이 전투에 패배하자 그 지역의 모든 남자와 10세 이하의 소년, 소녀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

1902년 4월 16일 공식적으로 필·미 전쟁이 종결되고 필리핀은 스페인에 이어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뒤 이어 필리핀을 공격하여 다음해 1월 2일 마닐라를 점령한 뒤엔 3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2월 23일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한 일본으로부터 미국은 다시 필리핀을 탈환한다.

미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과도 정부를 구성해 독립을 준비해오던 필리핀은 47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선포되었고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로하스가 취임하였다. 비로소 300여년에 걸친 식민지 역사를 마치고 주권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땅에서 일어난 두 번의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인해 필리핀의 모든 사회 기반은 90%이상 파괴된 상태였고 군사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침입가능성은 자연스럽게 필리핀이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하는 순서를 밟는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에 의해 이미 계산된 것이다.

오랜 전쟁과 값싼 필리핀 노동력과 상품(설탕, 잎담배 등)의 유입으로 미국내의 경제, 정치적인 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서의 가치는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필리핀이 갖고 있는 자원과 지리적 조건은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

었으므로 독립을 보장해 주는 대신 다른 것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을 미국의 반(半)식민지로 남게 한 경제적 종속을 위한 “Bell” 협정과 미군주둔을 위한 “MBA” 협정이다.

새로운 식민지 - Bell 협정과 MBA

1946년 7월 4일 필리핀과 미국의 통상무역에 관한 ‘The Phillippine Trade Act of 1946’ 혹은 법안을 제시했던 벨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벨’ 협정이 양 정부에 의해 조인되었다.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자본을 끌어 들어야 하는 필리핀의 상황이 일부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협정의 실제 의미는 필리핀 헌법에 있는 ‘필리핀인들이 적어도 60%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필리핀의 천연자원을 처분, 개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한 채 미국인들도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기 하였지만 실제 국내 자본력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는 자원의 이용권 대부분을 미국에 넘겨주게 된 결과를 낳는다.

필리핀의 독립에 맞추어 미국과 필리핀은 “The Treaty of General Relations 일반관계 조약”을 맺게 된다. 이 조약의 1조에는 ‘미국이 통치하던 모든 권한과 시설들을 철수하되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군사시설과 사용 권한을 필리핀의 동의 아래 남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약은 다음해 미군기지의 계속된 주둔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조약에 근거해 다음해인 1947년 3월 14일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99년 동안 사용료 지불 없이’ 필리핀 전역에 23개의 기지 및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Military Bases Agreement(이하 MBA)가 체결된다. 이 조약이 필리핀에게는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MBA를 통해 미군은 다음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²⁾

1) 미군이 기지로 사용하게 될 어떤 땅이든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권리 2) MBA 조항 “A”에 언급된 16개 기지(전체 면적 240,000에 해당)에 대한 사용 권리 3)MBA 조항 “B”에 언급된 다른 7개의 대안 시설을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미군이 기지를 확장하고 싶을 때 어떤 기지든 이와 교환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권리 5) 기지 안의 어떠한 시설이든 건축, 관리할 수 있는 권리 6)미 해군이 필리핀의 해양법에 따라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7)기지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면세 8) 필리핀의 육지와 해양을 주기적인 기동작전, 폭격, 사격 훈련, 임시 공군필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9)필리핀 안에서 모든 공공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건강상의 이유로 기지 주변의 모든 개인 소유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11) 필리핀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통계자료와 항공사진을 얻을 수 있는 권리 12) 미군 묘지와 역사적인 장소를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13) 미군 기지에 고용된 미국인이 자유롭게 필리핀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14)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15)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이 사유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16)필리핀

2) 『The Bases of Our Insecurity』 Roland G. Simbulan, p77

정부는 기지가 잘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17)우편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18)이동할 수 있는 모든 개선된 설비나 시설의 이동과 재배치 가능 19)이 조약은 99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다.

3. 필리핀의 미군기지

1947년 MBA 협정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미군은 본격적인 기지건설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를 겨냥하여 루손 섬에 집중된 기지는 크게 수빅 해군기지와 클락 공군기지이며 바기오 등 주위 도시에도 오락, 레이더 기지, 통신 시설, 미군 묘지 등의 여러 미군 시설들이 설치하게 된다. 이 두 기지는 미합중국 태평양 사령부의 직접 관할아래 인도양, 동남아시아, 북동아시아 전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기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미국의 전쟁, 특히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MBA의 조항 A항에서 지정된 미군기지 시설은 표 1과 같다.

표1. 필리핀의 미군기지

기지(시설)명	지역	용도
Clark Air Base (Fort Stotsenburg)	Angels, Pampanga Island Luzon	미공군13기지(PACAF), 아시아 커뮤케이션 지역, 동남아시아의 병참기지, 미군의 외국 기지시설 중 최대규모,
Naval Station	Subic Bay	
Naval Ship Repair Facility	Subic Bay	미해군 7함대의 핵심지원베이스
Naval Magazine	Subic Bay	
Naval Supply Depot	Subic Bay	
Naval Communication Station	San Miguel	7함대의 모든 통신 중계시설
Naval Air Station	Cubi Point	7함대의 항공모함과 전투기 지원
Mariveles Reservation	Military Bataan Province	석유·유탄유 터미널, 트레이닝지역
Camp John Hay	Baguio City	미군속을 위한 레저시설
Army Communication System	Manila	
Us Army Forces Cemetary	Rizal Province	
Angeles General Depot		
Leyte-Samar Naval Base		
Tawi-Tawi Naval Base	Sulu Archipelago	
Canacao-Sanglely Point Navy Base	Cavite	
Bago-Bantay Transmitter	Quezon City	Radio receiveing control
Area		
Tarumpitao Point	Palawan	transmitter station
Talampulan Island, Coast Guard No.354	Loran, Palawan	
Naule Point(Loran Station)	Zambales	
Castillejos Coast Guard No.365	Zambales	

조항 B에서는 추후에 사용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Mactan Island Army Air Bases

Floridablanca Air bases, Pampanga

Aircraft Service Warning Net

Camp Wallace, San Fernando, La Union

Puerto Princesa Army And Navy Air Base Including Navy Section Base And Air Warning - Sites, Palawan

Tawi Tawi Naval Base, Sulu Archipelago 를 지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면적과 기능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크며 독립적인 기지로서 주변의 시설들을 관장했던 수빅 해군기지과 클락 공군기지에 대해 주로 다루겠다.

수빅 해군 기지(Subic Naval Base)

수빅 해군 기지는 원래 1868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던 해군항 이었다. 아시아, 태평양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 깊숙이 들어온 수빅 만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군함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누가 봐도 천하의 군사적 요새가 될 만한 지형을 갖고 있어 스페인 시절부터 줄곧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잠수함 관련 시설과 해군항으로만 사용되었던 수빅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쿠비 해군비행장을 갖추며 복합시설을 갖춘 거대한 해군기지로 확대되게 된다. 이후 수빅 기지는 항공모함을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훈련장, 군수지원시설, 선박수리시설 등을 갖추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7함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수빅 기지는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이용되었다. 공격용 핵무기를 실은 이 잠수함은 잠발레스 산의 원자탄도 막을 수 있는 깊은 동굴에 보관되었다.

클락 공군 기지(Clarck Air Base)

루손 섬의 팜팡가 지역의 넓은 평야에 자리 잡은 클락 공군기지는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있었던 1898년 미군 기병대의 훈련 장소로 쓰였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계속 기지의 확장이 있었고 1919년에는 본격적인 공군기지로서의 시설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일본 점령 시절에는 일본군 '카미카제 특공대'의 출격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47년 MBA가 체결된 이후 팜팡가 지역과 딸락 지역 일대는 항공로, 발전소, 격납고 등의 시설을 갖추며 미국의 13 공군기지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공군기지로 확장된다.

클락 기지는 남아시아의 유일한 미 공군기지로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관장하였다. 태평양 미공군 사령부(Pacific Air Forces Command)의 지휘 아래 55 부대의 홈베이스며 전술전투비행단과 전술공수비행단이 있었다. 클락 기지는 태평양 일대의 모든 미군과 군수품을 운반할 수 있는, 미군에서 가장 큰 수송기가 운행할 수 있도록 10,500 foot의 활주로를 갖고 있으며 또한 Crow Valley Weapon Range 라는 최상의 폭격훈련장도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표 2. 수빅해군기지 개요

- 위치 : Ologapo City, Zambales Province, Luzon Lesion
- 전체면적 : 24,415 has (기지와 관련부지 포함)
 - 육지 : 13,790 has ·바다 : 9,525 has
 - 산미구엘 커뮤니케이션센터 : 1,100 has
- 주요기능과 시설
 - Naval Station : 항공모함 선박장
 - Cubi Point Naval Air Station : 7함대의 공격용 항공기용, 200대의 항공기 정박 가능
 - Ship Repair Facility
 - : 7함대 모든 군함의 60% 가량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 베트남 전쟁 동안엔 한번에 110대의 배를 수리함. 4,300여 명의 필리핀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함. 선박 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이나 장비 역시 자체 생산 가능.
 - Public Worker Center : 건축, 교통, 실용품 보급 등의 생활 서비스 기능
 - Naval Supply Depot
 - : 석유저장 및 공급(한 달 평균 4 million barrel 공급하고 22개의 탱크가 있는 'Fuel Farm' 시설 보유, 세계최대 규모), 기타 180,000종류의 물류 저장,
 - Naval Magazine
 - : 탄약 저장 및 수리 시설, 46,000톤의 탄약저장, 한 달에 15,000에서 25,000톤 가량의 탄약 제조 가능.
 - Naval Hospital : 평상시 84개의 침상 보유, 위급시 130개 까지 가능하도록 설비됨.
 - Naval Communication center : 7함대와 각 미군함과의 연락시설
 - Marrine Barrack
- 기타 시설
 - 휴양시설 : 골프장(18홀 규모), 볼링장, 극장, 체육관, 수영장, 요트클럽, 씨비스 클럽, 사격장 등
- 기지 거주 인구(1988년 기준)
 - 미군속 : 6,290명 ·군무원 : 728명 ·미군 가족 : 15,765명
- 기지에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 수 (1989년 기준)
 - 직접 고용자 : 15,811명 ·비직접고용자 : 21,330명
- 배후도시 : 올롱가포시(Olongapo City, 1986년 자료)
 - 경제의 90%를 기지에 의존, 2,124개의 서비스와 수출 관련 회사
 - 인구 : 271,030명 ·유흥시설 : 405곳
 - 유흥시설 종사자 : 약 23,000명
- 『Fact Book :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 과 『The Bases of Our Insecurity』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함

표 3 클락 공군 기지 (Clrak Air Base) 개요

- 위치 : Pampanga Province
 - 전체부지 : 55,000 has (기지와 관련부지 포함)
 - 기지시설 : 4,500 has
 - *Air Force Transmitter at Camp O'Donnel : 1,000 has
 - * Crow Valley Weapons Range : 20,000s
 - 주요기능과 시설
 - 미13공군의 사령부
 - 제3전술전투비행단 : 전술전투비행대대(F-4E Phantom II) 2, 공격용 비행대대 1
 - 전술공수비해대대 1 : C-130 Hercule와 C9s-374th 보유
 - 전투 지원 그룹
 - 550개의 침상을 갖춘 병원
 - 전략공군사령부의 최대 통신 설비 부대
 - 조기 경고 위성으로 적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 수집, 고·저주파 라디오 시설 갖추
 - 남서태평양과 인도양 최대의 군수물품 보급창고 역할
 - : 하루에 수송용 비행기 70대까지 착륙 가능한 규모의 비행장으로 위급시 3000톤의 화물과 22,000명의 인원을 하루에 수송 가능.
 - 전투기, 항공기 정비, 개조 서비스.
 - 폭격훈련 : Crow Valley 의 폭격 훈련장. 공중과 지상의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의 실제 전투 훈련장. 폭격 타겟, 기총 타겟, 전술 range, 비행장, 교란용 레이더, 지대공미사일 훈련 등 실시.
 - 정글훈련 : 베트남 전쟁 중엔 The Pacific Air Force Jungle Survival School 만들어 산림, 밀림 등에서 전투와 생존 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지 거주 인구(1988년 기준)
 - 미군속 : 10,827 ·군무원 : 598명 ·미군 가족 : 14,125명
 - 기지에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 수 (1989년 기준)
 - 직접 고용자 : 4,485명 ·비직접고용자 : 37,899명
 - 배후도시 : 앙헬레스(Angeles CIty, 1986년 자료)
 - 도시 수입의 55%가 유흥업으로터 나옴. 나머지는 대부분 농업.
 - 인구 : 188,834명
 - 유흥시설 종사자 : 약 10,000명
- 『Fact Book :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 과 『The Bases of Our Insecurity』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함

4. 필리핀 민중의 승리 - 미군기지 철수

기지철수 결정 과정

1947년 체결된 MBA는 88년까지 40차례 이상의 개정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1966년 9월 16일에는 기지의 사용기간을 99년간에서 당시로부터 25년 뒤인 91년 9월 16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 전등을 통해 필리핀의 두 기지는 전술적으로 더욱 중요해 지면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여러 차례의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며 기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 이러한 상황은 91년까지로 정해진 기지의 사용기한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해체로 탈냉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 미국에서도 기지 축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필리핀 안에서도 미군기지에 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왔으며 특히 80년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거센 민주화 운동은 필리핀의 주요한 정치, 사회 이슈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미군기지 역시 쟁점 이슈가 되었다. 86년 2월 피플 파워 1(People Power 1)로 마르코스 정권이 막을 내리고 코라손 아끼노(Corazon Aquino)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87년 2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91년 미군기지의 사용만료 이후 상원의 찬성과 국회가 요구하여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을 제외하곤 필리핀 영토에 외국군 기지나 군대, 군 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 3)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필리핀 영토 내에서의 핵무기 사용금지 조항도 포함한다. 이 헌법은 91년 미군기지 사용 기간 만료 이후 미군기지 철수의 중요한 바탕이 되지만 한편으로 기지주둔의 연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90년 5월 15일 기지사용만료 1년여를 앞두고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부, 외교부 등의 관계자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기지사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91년 6월 12일 팜팡가 지역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클락 기지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자 미군은 즉시 클락 기지를 포기한다. 결국 수빅 기지만 협상 대상이 되어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아끼노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조약인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 and Security"를 맺는다. 이 조약은 헌법에 따라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상원의 투표가 있기 전 당시 미 대통령 조지 부시는 새로운 조약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 국회가 요구한 \$362.8 million 원조를 약속하고 필리핀의 안보를 위해 해마다 \$203 million 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약속들이 새로운 조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

3) 원문 "After the expiration in 199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military bases, foreign military bases, troops or facilities shall not be allowed in the Phillipines except under a treaty duly concerned in by the Senate and, when Congress so required by a majority of votes cast by the people in a national referendum held for that purpose and recognized as a treaty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olitical Leadership, Decision making, and the Senate Rejection of the RP-US Bases Treaty on 16 September 1991』에서 재인용

었다. 그러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지사용만료일인 91년 9월 16일 필리핀 상원 23명은 투표를 통해 기지연장을 거부한다. 기지연장을 하기 위해선 상원의 3분의 2이상인 16명이 찬성을 해야 했지만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2표로 기지연장은 거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원의 반대로 기지연장이 거부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7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있었다. 미군기지가 주둔한 이후 발생한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필리핀 사회 내에서의 논쟁은 70년대 이후 끊이지 않았으며 마르코스 독재정권 반대운동이 크게 전개된 80년대 중반과 91년 상원들의 결정을 앞두고는 폭발적인 기지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요 쟁점과 이슈⁴⁾

- 미군의 경제적 영향

기지가 있으면서 생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필리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기지 주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해마다 미군기지로 수백의 경우만해도 \$227million 가량의 이익을 얻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기지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생산 활동은 미군이나 미국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필리핀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군이 쓰는 소비재의 대부분도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들이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해서 생기는 경제적 수입이란 것은 대부분 향락산업이나 기지에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들의 수입이다. 또한 미군은 단순한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의 전체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뿐이었다.

기지 찬성 상원들은 기지가 철수할 경우 65만 명가량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미군기지에 고용된 노동자는 필리핀 정부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1백1십8만의 5%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 비농업 노동자의 비율에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또한 기지에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의 기지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 것과 달리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 역시 경제적 가치로 다시 살펴보면 수빅 기지의 면적은 세계의 파인애플 생산 중심지인 민다나오 섬의 델몬트와 돌의 파인애플 농장을 모두 합친 규모에 해당된다. 수빅과 클락을 합친 규모에 농사를 지을 경우 해마다 \$109 million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사하기도 했다.

기지를 대가로 필리핀 정부가 받아온 군사적, 경제적 원조는 필리핀 정부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지 미군이 기지 사용료 차원에서 지불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 역시도 '원조'의 형태로서 군사지원의 경우 무기나 시설의 지원-당시 수빅의 기지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 이미 낡은 무기들을 지원해 다시 수리해야 하는 일들

4) 이 부분은 필리핀 국립대학의 제3세계연구소에서 펴낸 계간지 『KASARINLAN』 88년 1분기 호의 기사 『Cornucopia or Curse : The Internal Debate on The US Bases in the Philippines』와 『Fact Book :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과 『The Bases of Our Insecurity』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 잦았다고 한다-이었고 경제지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미군기지가 있는 13개의 나라 중 필리핀에게 이뤄진 원조 규모는 그중 8번째에 불과했다.

- 기지철수 후 대안

기지가 철수한 이후 그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89년 아끼노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에 기지위원회를 만들고 기지철수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한다. 그 결과는 지금 수빅과 클락의 발전모델의 바탕이 되어 수빅 기지는 마카오 항과 같은 자유항으로, 클락은 홍콩과 같은 특별 상업지구로서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갖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휴양지였던 캠프 존헤이는 레크레이션과 투어리스트 센터로 수빅은 대형 조선소와 해양산업시설, 상업항구로 클락은 국제공항과 대규모 농업단지 등으로 변경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핵무기의 위협

아끼노 대통령 시절 개정된 필리핀 헌법에는 필리핀 영토에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군기지는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1975년 필리핀 국방부는 필리핀에 적어도 54개의 전략적 핵무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무기는 모두 미군이 보유한 것이었고 이 양은 서태평양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다. 이후 헌법 개정 이후에도 이 무기들은 철수되지 않았다. 원하지 않게 핵보유국이 된 필리핀은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핵사고의 위기까지 고스란히 안게 된 것이다.

- 기지의 사회적 비용 : 올롱가포(Olongapo city)와 앙헬레스(Angeles City)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사회문제 중 가장 그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은 바로 기지가 주둔해 있는 도시들이다. 올롱가포와 앙헬레스는 각각 수빅 기지와 클락 기지의 배후 도시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두 도시의 경제는 절대적으로 기지에 의존해 있었다.

소규모의 상업시설을 제외하곤 모두 술집, 나이트클럽, 호텔, 마사지 등의 유흥 향락산업이 들어선 이 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큰 문제들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향락산업으로 인한 매매춘 여성의 증가와 그로 인한 성병, 에이즈, 버림받은 아이들 등에 관한 문제다. 1987년 올롱가포 시의 사회위생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405개의 유흥향락시설(Rest and Recreation)이 있었고 6,011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민단체들의 조사에선 15,000여 명이 등록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8000여 명 가량은 비등록된 업소에서 매매춘등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앙헬레스 역시 3,174명의 등록된 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가 있었고 비등록된 숫자까지 합하면 10,000여 명이 넘었다. 당연히 이들은 주로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결과 1987년 당시 올롱가포에 23명, 앙헬레스엔 16명의 AIDS 환자가 발견되었고 조사 대상자들의 4% 정도가 각종 성병에 전염되어 있다. 미군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미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도 자주 일어나 올롱가포에만 3천여 명의 혼혈아들이 거리에 버려졌었다.

미군과 그 가족들이 일으키는 사회범죄 역시 두 도시의 큰 문제였는데 올롱가포에서 87년

한 해동안 일어난 범죄 중 11.84%는 미군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미군이 필리핀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일은 물론 거의 없었다.⁵⁾

현재 올롱가포 시에서 매춘, 폭력 등으로 피해 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지원 시설인 프레다(PREDA)의 대표로 당시 기지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영국인 샤이(Shay Cullen) 신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다.⁶⁾

“내가 처음 올롱가포에 온 1969년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다. 당시엔 130여대의 군함들이 수빅만에 정박해 있었고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머물렀던 수천 명의 해군들이 수빅의 거리에 쏟아져 나왔었다. 그들은 올롱가포의 사람들에게 섹스와 놀이를 원했고 올롱가포 시는 이 요구에 응해야만 했다. 올롱가포엔 당시에 지역 정부나 장사, 기지 안에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곤 수천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 경제구조는 미군기지의 결과였다. 수천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는 이 슬픈 현실이 일어나는 동안 미군들에 의해 형성된 향락 산업은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한 결혼, 버림받은 여인들, 거리의 아이들, 약물중독, 온갖 성병과 에이즈까지 만들어냈다. 미군은 어린 소년들을 강간하거나 성학대 하였고 미군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도 네다섯 살의 아이들까지도 매매춘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매매춘 거래망에는 미군속도 여러명 포함되어 있었다. 18개월 된 아이가 미군 병사 세 명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성병에 걸린 사건도 있었다. 91년 철수 결정이 나고 92년 미군이 떠났지만 여전히 올롱가포는 매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기지가 있었던 곳의 운명이다. 아마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폭발적인 미군기지 반대운동

미군기지 문제가 큰 이슈가 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없었냐는 질문을 필리핀의 활동가들에게 던지면 모두 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1969년 7살 가량의 녀마주이 소년이 미군의 총에 의해 죽은 사건이다. 당시 미군은 그 소년이 ‘멧돼지’ 인 줄 알았다고 말하였고 그 미군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은 피부의 필리핀인을 검은 색깔의 필리핀 멧돼지로 착각했다는 인종차별적인 말과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곧 필리핀 사회에서 미군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이 사건은 영화 ‘MINSSY MAY ISANG GAMOGAMO’ (ONCE THERE WAS MOTH)로도 만들어졌다 한다. 필리핀의 독립 영웅 호세 리잘의 어린시절 일화에서 따온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평범한 이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불꽃으로 날아드는 나방이 되게끔 한 이 사건과 비슷한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며 필리핀인들을 기지반대운동에 나서게 한다.

5) 『Fact Book :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 과 『The Bases of Our Insecurity』의 내용을 참고

6) 2004년 4월 21일 올롱가포 프레다 사무실에서 인터뷰 진행

80년대 중반 필리핀의 운동진영은 Anti-Bases Coalition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선다. 특히 민족민주운동진영(바얀 BAYAN)의 노동자 그룹인 KMU(Kilusang Mayo Uno - May First Movement), 학생운동그룹인 League of Filipino Students 등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시위 등을 주도한다.

1990년 3월 필리핀 대학의 학생 운동가들은 마닐라에서 클락 기지가 있는 앙헬레스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노동절 날 KMU는 5만 명을 조직하여 클락 기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의 시위는 경찰의 진압으로 많은 수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로 무장세력이었던 NPA(National Democratic Front)역시 기지반대를 주장하며 미군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였는데 NPA에 의해 87년부터 89년까지 모두 6명의 미군속이 살해당했다.⁷⁾

필리핀 민족민주 운동진영조직인 바얀의 국제연대 담당자 리파 (Rita Baua)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 하였다.⁸⁾

“1970년 때부터 운동진영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일어났다. 마르코스 정권시절이던 그때 필리핀의 여러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에 대해 알아야만 했다. 마르코스 독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통령들 닉슨, 카터, 레이건이 그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주로 미국과 미군의 문제에 대한 정치교육을 많이 하였다.

80년 중반부터 마르코스 독재정치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농민들은 땅 문제로, 미군기지 안의 노동자들은 차별에 관한 문제로 비즈니스맨들조차 미군을 통해 수입은 얻지만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기지 안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기지에 대한 사용료가 충분한가 아닌가가 큰 주제였는데 실은 그것은 사용료가 아닌 단순한 원조였고 그 역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91년 기지사용만료를 앞두고는 미군기지 이슈가 국가 전체의 이슈가 되어 거의 매일 미 대사관 앞, 수빅 클락 기지 앞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모빌리제이션과 함께 상원들과 국회에 대한 로비활동들도 전개하였다. 반대파와 찬성과 모두 매일 랠리를 하였다. 실제 여론조사는 기지연장을 주장하는 쪽이 더 많기도 하였지만 거리의 시위대는 반대파가 훨씬 많았고 이 압력으로 결국은 상원들이 연장 거부를 결정하였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압력이었다. 미군도 상원들의 논쟁과정을 참가해 지켜보았고 매일 언론에는 그대로 중계되었다. 이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외국의 활동가들도 많이 와서 연대하고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주목할 부분은 기지 안의 노동자들의 운동 역시 활발하게 일어난 점이다. 물론 기지 철수보다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군의 인권유린 등에 관한 것이긴 했지만 기지에서 일어

7) 『Politics&Society』, 『The Mass Movement』 p 103

8) 2004년 6월 5일 바얀 사무실에서 인터뷰 진행

난 여러 상황들을 증언한 기지 안 노동자들의 반대운동은 어느 세력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수빅 기지의 United States Naval Ship Repair Facility(SRF)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의 리더였던 마니 토레스 Monny Torres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¹⁰⁾

“나 역시도 원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기지 안에서 일하며 다른 필리핀 노동자들보다는 나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겪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지 안의 노동자들은 늘 미군으로부터 감시를 당했다. 못 하나가 우연히 옷에 들어가도, 신분증을 잃어버려도 처벌을 받아야 했다. 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서도 우리보다 20배가 많은 월급을 받았다. 필리핀 기술자들이 관리자가 되기도 했지만 미국인 부하직원보다는 낮은 월급이었다. 방사능 물질을 다루야 하는 노동자들의 방사능 위험수당은 고작 하루 1페소에 불과했다. 기지 안에서는 79년, 82년, 86년에 세 번의 큰 파업이 있었는데 처음의 두 차례는 약간의 임금인상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86년에는 미군은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 86년에 두 달간 3천여 명의 기지 노동자들이 기지 앞에서 데모를 하였고 리더들은 20일간 단식을 하였다. 미군은 임금인상대신 쌀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을 주동했던 42명을 색출하여 해고시켰다.

우리는 미국 노동법에도, 필리핀 노동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기지의 노동자가 미국 노동법에 적용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베트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기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다. 더 이상 전쟁에 종사하는 필리핀 사람은 없다. 기지에서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과도 같았다.”

기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역시 활발하였는데 현재 기지정화위원회(PTFBCU)의 사무총장인 뮐라 발도나도 역시 80년부터 수빅에서 기지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지하활동을 하다 2년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뮐라의 말에 의하면 활동가들을 체포한 주목적은 기지 안의 노동자 리더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물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뮐라 발도나도는 남한의 기지반대운동에서도 반드시 기지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기지로 인한 수혜자들로 보이지만 실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기지 철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대상이 바로 기지 노동자라는 이유다. 물론 기지 안에서 일

9) 표2의 수빅 기지의 SRF를 포함한 9개 시설에는 직접 고용된 필리핀 노동자들이 있었다. 클락 기지의 공군시설과 달리 해군의 군함을 포함한 모든 장비들을 제조, 수리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수빅 기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이들은 이후 수빅 기지의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10) 2004년 4월 24일 아시아센터 3기 연수생 수빅 방문 중 강의 내용. 마니 토레스는 86년 해고되었고 지금은 성직자로 일하고 있다.

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도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5. 미군이 남기고 간 재앙

91년 9월 16일 역사적인 상원의원의 기지연장 거부 결정으로 필리핀의 미군기지는 모두 철수 되었다. 이미 클락 기지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되면서 철수를 마쳤고 수빅 기지 역시 다음해인 92년 11월 15일 수빅 만에 걸렸던 성조기가 필리핀기로 교체되는 의식을 끝으로 수빅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스페인시절부터 거의 4백년 가까이 외국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클락과 수빅만이 비로소 필리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필리핀 사회는 기지철수로 인해 일어나게 될 많은 변화들을 논의하였고 대안을 준비하였다. 93년 3월 13일 필리핀 정부는 수빅을 자유항(Subic Free Port)으로, 4월 3일 클락을 특별 경제구역(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선언하고 경제개발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

그러나 기지철수에 관한 그 많은 논쟁과 대안 가운데에서 아무도 기지주둔으로 인해 일어났을 ‘환경문제’에 대해선 주목하지 못했다. 아무도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죽음의 우물 - 클락의 비극

91년 6월 12일 팜팡가 지역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였다. 수일에 걸쳐 일어나 화산폭발로 클락 미군기지까지 파괴되기 시작하자 미군은 서둘러 철수하게 된다. 피나투보 산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을 비롯해 팜팡가와 딸락 지역 일대에는 2만여 세대의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철수한 기지 안의 CABCOM(Clark Air Base Command 이하 캄콤)에 난민촌을 만들게 된다.

약 7천 세대가 캄콤에 설치된 난민촌에서 천막이나 미군이 사용했던 막사 등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203개의 펌프 우물을 파 이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했다. 캄콤에 거주하던 난민들은 이 물에 기름이 뜨고 색이 이상하며 냄새도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던 그들은 그냥 그 물로 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부터 캄콤 안에는 자꾸만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태어난 지 2, 3일 만에 아이들은 고열과 설사를 앓다 죽어가고 임산부들의 유산이 잦아졌다. 어른들도 피부병 등을 앓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두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었고 캄콤으로 오기 전까진 멀쩡했던 아이들도 앓기 시작했다.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말을 하지 못하고 걷거나 서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화산에 이은 또 다른 재앙이 캄콤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 재앙은 바로 캄콤의 땅에 만든 우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원래 캄콤 일대는 클락 기지의 모터풀(motor pool)로 사용되었다. 온갖 차량들이 이곳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수리를 하였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기름이나 화학물질들은 바로 땅 밑으로 흘러들어갔고 캄콤의 난민들은 그 물을 마시고 생활한 것이다. 이후 전문가들은 조사를 통해 그 물과 땅에 납, 수은, 질산, 석유, 기름 등이 포함된 것을 밝혀냈다.

캄콧 난민들에게서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95년부터 난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팜팡가 지역의 마답탐(Madatap), 마와퀴(Mawaque), 산호세(San Hose) 등의 마을에 새로운 정착촌을 만들고 난민들을 이주시켰다. 적게는 2-3년에서 길게는 7년 가까이 캄콧에서 살았던 이들의 비극은 이주 뒤에도 계속 되었다.

캄콧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몇 년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 그 아이들에게도 소아마비 등의 질병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몸 안에 축적된 독극물들이 계속 후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클락의 미군기지 독극물 희생자 조직인 SAUP은 2003년에 328명의 기지의 독극물로 인해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 조사된 것만으로 195명의 사망자가 카운트되었고 분명 이 숫자는 많은 수가 누락된 것이라고 한다.¹¹⁾

캄콧의 난민들 뿐만 아니라 기지 인근 주변의 마을 사람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군이 기지를 이용할 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위험물질들을 다뤄왔고 해충을 방지한다며 자주 대량으로 주위 마을에 살충제를 살포해왔다. 특히 화산폭발이 이뤄지면서 미군은 대부분의 독성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땅에 묻은 채 떠났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기지가 있을 때엔 기지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물건들을 주워 팔며 살았고 기지가 떠난 후에는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미군이 남기곤 한 독극물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

클락의 희생자들을 만나다

캄콧의 이주자들이 살고 있는 마답탐 지역에서 희생자 조직인 SAUP의 활동가들과 함께 내가 만난 희생자들은 며칠 사이에 모두 20여 명이 넘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아픈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중증의 소아마비 환자이거나 피부병, 심장병, 간질 등을 앓고 있었고 모두 클락 기지 안에 설치되었던 이주민 시설 캄콧에서 거주하였거나 클락 기지 인근 마을에서 살았던 이들의 자녀들이다. 희생자들의 상황과 인터뷰 당시의 느낌들을 소개한다.

■ 조엘 주니어(3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조엘(부, 37세, 페디캡 드라이버) 조셀린(모, 30세, 주부) 3남1녀 중 막내

조엘의 부모는 95년-97년 동안 클락의 캄콧 난민촌에서 공군들이 쓰던 막사에서 살았다. 물에 기름이 있고 냄새가 났지만 그 물을 먹고 살았다. 그곳에서 네 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중 한명은 땡기열을 앓다 죽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괜찮으나 캄콧으로 와서 낳은 두 명의 아이 중 막내인 조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젓이 기형이었다(현재도 목젓 부분이 크게 벌어져 있음). 자라면서 C&P 증세가 확실해졌다. 조엘은 두 달 정도 병원에 다녔다. 집을 구하기 위해 모았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래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네 명의 아이가 있고 남편은 하루에 100페소 정도를 번다. 이걸로는 살기가 어렵다. 지금 집은 조셀린의

11)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의 보도자료, 2003년 10월 14일

엄마 집에 다섯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조엘은 아직도 기어 다니고 서지 못한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는 있다고 한다. 우유나オート밀, 누들 등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다. 약이나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비타민 조차 먹지 못한다. 조엘은 클락에서 가장 처음 만난 아이다. 아픈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조금은 두려웠던 마음이 이 아이를 만나면서 모두 사라졌다. 아픈 아이지만 과자를 주면 좋아하고 잠이 덜 깨 칭얼거린다. 똑같은 아이다. 조엘의 집에 들어가 보았다. 어두컴컴한 집 안엔 방도 아닌 벽돌로 된 칸막이가 있고 그 안에 평상 같은 침대가 놓여 있다. 그 안에 5-6명의 가족이 산다. 이런 식으로 다섯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다.

■ 로세안(ROSEAN, 7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헤르미니오(HERMINIO 부, 48세, 건축), 수산(SUSAN 모, 43세, 주부), 5형제 중 막내

• 로세안 위로 네 명의 아이들은 모두 캄콰에 오기 전에 낳았고 로세안만 그곳에서 임신하였다. 임신했을 당시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휘어져 있었다. 로세안은 뼈가 약해 서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지낸다. 병원에 가 본적은 없고 클리닉에만 몇 번 가보았다. 엄마, 밥 정도의 말을 할 줄 알고 간단한 말은 알아듣기도 한다. 몸이 손을 대면 부러질 것 같이 약하고 다리가 3-4CM 정도의 굽기밖에 되지 않는다.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다. 로세안의 엄마 수산은 부드러운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세안이 매일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는데 머리를 흔들다 자꾸 땅에 박아 다치기 때문이다.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매일 아이를 데리고 다니느라 일할 수가 없고 남편 역시 며칠에 200페소 정도 밖에 벌지 못한다.

로세안의 집 역시 여러 가구가 한 집에 모여 산다. 로세안 식구는 거실 같은 공간에 그냥 사는데 주인집의 의자 말고는 가구가 전혀 없다. 돛자리가 깔린 바닥에서 다 살고 있다. 폭신한 매트.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실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처한 생활이 이 정도다. 손가락 하나가 로세안의 장난감이다. 다리를 만져보았다. 손 안의 감촉으로는 다리라고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 폴 라이손 사라(3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할머니(페트로닐라 트와손, 60세), 부(트와손, 28세), 모(레이아 사라, 27세), 2형제 중 막내

부모 모두 캄콰에서 살았다. 첫째아이(5살)은 괜찮은데 사라는 태어난 지 3일만에 머리가 돌아갔다. 병원에 갔더니 C&P 증세인것 같다고 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가 C&P 판정을 내렸다. 사라는 정기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마사지 등의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치료 때마다 200페소의 치료비가 들고 교통비 등이 들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사라의 아빠 트와손은 건축 일을 하는데 정기적인 일거리가 없어 일 년에 5개월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다. 엄마와 할머니 둘이서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일을 하려야 할 수 없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안고 있기도 힘이 든다.

사라의 할머니는 계속 "We have no choice" 라고 말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캄콰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화산폭발이 있었던 바리오 바콜로는 그녀의 고향이다. 50년을 거기서 살았다. 그곳에 살았을 때엔 직업도 있었고 아이도 아프지 않았다. 화산폭발이 있고 아이들이 아프지 10년이 훨씬 지났어도 정부 역시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한다. 의사가 아이의 증상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한다. 뛰어놀 수는 있을지, 직업을 얻을 수는 있을지. 지난 2월에 에릭사라스(6살 남자아이, C&P)가 죽었을 때엔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사라 역시 같은 증상이고 사라 역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나탈리아 (나탈리아 따빵, 여, 1년 6개월,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부(노베르도 따빵 28세) 모(라구엘 24세) ,3형제 중 막내

엄마 라구엘이 17살 때(97년 경) 2년간 캄콰에 살면서 캄콰의 피난민 지원을 위해 세워진 옷을 만드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을 했었다.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98년에 결혼을 하고 이주했다. 거기에 살 때에도 물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다른 물을 마실 방법이 없었다.

나탈리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열로 계속 아파 병원에 갔더니 C&P 증상을 이야기 해주어 알았다. 위로 태어난 2명의 아이들은 모두 괜찮고 막내인 사라만 증상이 나타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많이 아프지만 병원 치료나 약 조차도 먹지 못한다. 남편이 부정기적으로 일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아이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검진이라도 받아 보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라구엘은 이제 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세 명의 아이가 있어 무슨 아이가 더 필요할까 싶지만 대여섯의 아이들이 기본인 필리핀 사회에선 라구엘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대신 말해주는 것이다.

■ 켈리 소리야노(여, 5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부(리노 소리야노 39세, 목수), 모(살리 소리야노 33세), 3형제 중 막내

소리야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선 약한 C&P 증상이다. 작년부터는 걸을 수도 있다. 처음엔 감기증상을 그러다 설사, 고열 증세를 오랫동안 나타내 병원에 가서 C&P 판정을 받았다. 발이 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는 못한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의사표현은 정확히 한다. 엄마 살리는 현재 임신 중이고 캄콰에 있을 때에도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었다. 부모 모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캄콰으로 이주해 왔다. 임신 중인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PTFBCu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 자신은 두 번의 희생자라 말한다. 피나투보 화산의 희생자, 특식의 희생자로. 나탈리아는 사진을 찍어주자 좋아하며 여러 포즈를 알아서 취해준다. 너무 예쁜 아이다. 손님이 왔다고 필리핀 콜라를 내 놓는다. 엄마가 걸어보라고 하자 화를 낸다. 이미 자신을 아는 나이로 보통과 다른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

■ 미겔(9살, 성장지체)과 마이클(6살, 안면기형)

미겔은 머리에 튜브를 심어 머리에 찬 물을 빼내고 있다. 뇌에 물이 차는 병 하이드로 셀로 루스. 캄콤에 이주하기 전에 태어나 1살 때 병을 알고 수술을 한 뒤 캄콤으로 이주했다. 캄콤에 있어 생긴 병은 아니다. 9살이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지능이 낮고 성장이 늦다. 아이가 보이는 다른 증상들은 캄콤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이클은 뇌의 뼈 한 조각이 코 옆으로 내려온 안면기형 상태이다. 수술을 하면 없을 수 있다. 아이의 엄마가 임신 1-2개월 일때 캄콤으로 이주해 왔다. 수술비가 12만 페소인데 단체의 모금 활동 등으로 2만 페소까지 모았다. 두 아이는 SAUP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노르마의 손자들이다.

■ 멜진(10살, 심장병)

멜진은 학교 졸업식에 가 없어 사진으로만 만났다. 10살. 심장에 구멍이 나 있다. 1살 때 계속 고열이 나 병원에 가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쉽게 지친다. 수술비가 15만 가까이 한다. 아직 수술비를 마련 못해 수술을 못하고 있다. 키가 작고 많이 말랐다. 지역의 4명의 아이가 단체의 지원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한다.

■ 로살린(여, 13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모(Rosorio R locsine, 40대), 딸 둘

로살린이 7개월 되었을 때 캄콤으로 이주했다. 이주한지 3개월 되었을 때 설사와 고열을 하여 병원에 가서 Cerebral Palsy증상을 알았다. 심장병도 함께 앓고 있다. 자라면서 계속 등뼈가 휘고 말을 못하고 서지도 걷지도 못한다. 등이 휘어 숨쉬기도 힘들어 한다. 1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 등뼈 수술을 받으면 50%의 확률로 등을 고칠 수 있다고 들었다. 캄콤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의사가 한명 있었지만 그는 수련의 사였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물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다.

매일 2-3명의 아이가 죽어가는 걸 봤다. 물 때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남편이 죽고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한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

로살린 같은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고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아무리 아픈 아이라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학교에 가면 말하는 걸 배울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 두 번째 방문때 로살린이 생리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미 13살이 되어 4달에 한번 정도 생리를 하고 생리 때마다 처음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운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기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계속 짜증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자 소리를 지른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알아듣고 기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 파트라시안 프리야스 (여, 3살 반, 간질)

- 가족관계 : 할머니(안젤리나 토레넨, 42세) 부(27세) 모(26세), 딸 둘 중 막내

부모가 기지 주변에서 25년간 살았다.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녔고 자주 살충제(DDT)를 뿌렸

다. 아이의 간질 증상은 살충제 때문일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 이 지역엔 모니터 된 것만 6명의 아동 간질환자가 있고 모두 약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발작을 한다.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한다. 약을 먹었을 때는 간질 발작이 조금 나아졌었다. 아이의 삼촌(Rufino Tolentino)은 작년에 클락 상업지구에서 배수관을 정비하는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했는데 그때도 심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았다고 한다.

■ 조엘(Joel N Canlas, 남, 7살, Cerebral Palsy))

• 가족관계 : 부(Wilfredo P Calnos, 46세), 모(Maria Josefa N Canlas, 40세), 네형제 중 둘째

한쪽 다리가 흰 비교적 약한 정도의 C&P를 앓고 있다. 걸을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 앙헬레스의 병원에서 7개월 동안 열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고 자라면서 더 안으로 굽은 것 같다.

부모는 기지 주변에서 22년을 살았고 아이들은 네명이 있는데 제이손은 그중 둘째다. 다행히 다리가 흰 것 말고는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는다. 다른 아이들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심각한 편은 아니다.

■ 로리마 (남, 12살, 심장병, 폐질환, 발육부진)

92년 캄복에서 임신하여 태어났다. 태어난 뒤 1년 뒤부터 자꾸 아프기 시작하였다. 고열과 폐렴 증상 등을 알았고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였다. 지금도 앉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 서지 못하고 앉아서 움직이는 정도다. 말을 하지 못한다. 2001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병원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들었다. 기지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받은 약과 치료 정도가 전부였고 지금은 그나마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 모두 직업이 없고 큰 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고 있어 더 이상의 치료나 약은 받지 못한다.

■ 아리엘 사모라 (Ariel Jamora, 20세, 피부병)

아리엘의 부모는 기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내다 팔면서 25년을 살았다. 태어났을 때부터 피부가 약해 가려워 긁으면 금방 피부가 벗겨지곤 했다. 얼굴만 빼곤 모든 피부가 성한 곳이 없고 아프고 가렵다. 손톱, 발톱은 모두 빠졌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져서 약은 먹지 않고 오일이나 바셀린만 바르고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리엘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했지만 피부병 때문에 일을 하지는 못한다. 어서 직업을 구해 가족을 돕고 싶다고 한다. 여동생 마리(15세)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데 초등 학교만 졸업했다. 부끄러움이 많아 학교를 더 다니지 않았다.

차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얼굴을 제외하곤 슬쩍 걷어서 보여준 팔과 다리는 피부라고 부를 만한 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혈관이 보이는 피부밑의 조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여기저기 피딱지도 앉아 있었다. 15살의 부끄러움이 많은 동생 마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앉았다가 금새 일어나버렸다. 긴 머리에 예쁜 아이다.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내 걱정이 되었다. 마치 내가 그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된 건 아닌지...두 아이의 몸에 쌓인 중금속을 빼내지 않는 한 치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름다운 수빅만의 진실

수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마닐라에서 출발해 평지를 계속 달리다 오르막길을 만나 굽이굽이 산을 돌면 울창한 숲을 만나고 굽이굽이 산을 돌아 내려가면 수빅만이 펼쳐진다. 굽은 만을 따라 부드러운 모래사장, 망그로브 숲 등 다양한 바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수빅만은 필리핀의 원주민인 에이테(Aete)의 보금자리였다. 몇 차례 수빅을 방문하면서 나는 이 아름다운 곳을 오랫동안 미군에게 빼앗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노를 느꼈다. 지금 역시 그 아름다움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푸르게 빛나는 수빅의 바다 속에, 숲속에 실은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1992년 11월 15일 수빅만의 성조기가 필리핀 기로 교체되고 11월 24일 항공모함 벨리우드호가 수빅만을 떠나며 미 7함대 수빅해군기지는 막을 내렸다.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항만, 선박설비시설들을 활용하고 수빅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미해군이 있던 모든 곳을 “수빅자유항 Subic Free Port Zone”으로 선포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해 SBM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를 만들어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미국과 미해군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미 수빅만에서 미군이 전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빅의 선박수리시설, 대규모의 산업과정에서 쓰인 심각한 중금속과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경고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전 기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감추고 있던 직업병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수빅 기지 노동자들의 증언

수빅 기지의 오염에 관한 진실은 몇 차례에 걸친 환경조사보다도 기지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더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수리하고 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설비와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던 수빅 기지에서는 당연히 수많은 독성화학물질들이 사용되었고 아무런 처리없이 버려졌다. 이 모든 과정은 아무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오염에 대한 지식 없던 상태인 기지 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선박 안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암을 유발하는 1급 물질로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었다. 이미 미국은 70년대부터 석면을 1%라도 함유한 건축자재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필리핀에선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수빅의 희생자 조직인 YAKAP에서 활동 중인 전 기지 노동자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호세 레안디노(Jose Reandino) : 53년부터 90년까지 기지 근무.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 Defence Reutilization Management Office(DRMO) 관리자. DRMO는 기지 안에서 나온 무

기, 기계 등을 모아 고철 등 재활용할만한 물건들을 골라내던 곳이다. 기지의 모든 물건들은 쓰레기장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다시 분류되었다. 하루 100여 대의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중엔 석면도 있었고 약품이나 기름이 담긴 드럼도 있었다. 작업장은 그냥 흙바닥 이어서 늘 바닥엔 흘러나온 약품과 기름이 가득했고 바로 옆의 강으로도 흘러들어갔다. DRMO를 거쳐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도 특별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옹덩이를 파고 묻고 하는 식이었다. 모든 종류가 다 묻혔다. 물론 석면, PCB, DDT, 컨테이너에 보관되던 다른 오염물질들도 모두 그냥 묻혔다.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던 이들은 주로 원주민 에이떼였다. 일자리가 없던 에이떼가 스스로 단체 'Negros Asociation'을 만들어 하루에 50명씩 서로 돌아가며 일을 했다. 에이떼 중에 희생자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은 폐쇄된 DRMO 바로 앞엔 작은 강이 흐르고 있고 강엔 하수관이 있다. 물론 이 강은 수빅만으로 흘러간다. 그 강은 눈으로 보기에다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 가까이만 가도 머리가 아프고 강바닥을 파보니 계속 검은 흙만 나온다.

■ 브라울리오 파빌리아(Braulio Pabillar Jr) : Ship Repair Facility의 전문기술자로 30년간 일했고 슈퍼바이저 였다. 현재 폐에 석면중독 나타남. 기지 안에서 일했던 4,3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오염에 노출되었었다. 특히 군함의 보일러실 등에서 일했던 8천여 명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모두 노출되었었다. 보일러실같이 온도가 높은 곳은 단열재로 모두 석면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방에 석면이 있었고 때때로 석면 더미 위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석면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하였다. 그 친구는 그래서 얼굴에 암이 생겨 죽었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이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에서는 석면이 문제가 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필리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일했다. 요즘에도 당시 동료들이 한 달에 두 명 정도씩 죽고 있고 어떨 때엔 4명이 죽을 때도 있다. 핵잠수함 안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적도 있다. 미국인 동료로부터 납으로 된 박스들을 수빅 만의 깊은 바다에 버렸다 라는 것을 듣기도 했다.

■ 니카노 메리노(Nicanor Merino) : 1966년부터 92년까지 Naval Magazine에서 지게차 운전을 했다. 무기를 운반하는 일이었다. 주로 탄약을 운반했는데 박스가 풀어지면 손으로 탄약을 옮기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이때 탄약에서 검은 가루와 케이스에서 석면조각들이 흘러나와 흡입되곤 했었다. 아이가 세 명 있는데 큰 아이(사무엘)가 C&P이고 둘째가 성장이 늦다. 기지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지가 폐쇄되기 전에는 거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매립장에 갖다 묻는 일도 했었다.

■ 롤란도 : 64세. 폐암환자. 에이떼원주민. 원래는 수빅의 쓰레기 매립장 일대는 에이떼들이 살던 곳이다. 그 곳이 미군의 시설이 되면서 에이떼는 살 곳을 잃었고 숲 대신 쓰레기장에서 일하며 살아야 한다. 거의 하루종일 쓰레기장에서 일했다. 부인도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게 그 쓰레기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폐암이라고 알긴 하지만 병원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고 약만 먹고 있다. 집 한켠의 평상같은 침대에서 하루종일 누워있지만 한다. 2004년

3월 30일 돌아가셨다.

■ 리사이 프라시스코 : 99년 7월에 죽은 기지 노동자의 미망인. 남편은 배 밑을 청소하는 일을 했다.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서 바로 독극물에 노출이 되었다. 병명은 폐암이었다.

■ 그레고리오 사카이 : 80세. 53부터 기지철수 까지 일함. 석면중독. 마지막 3년간은 여러 종류의 물건들 - 파이프, 기계, 화학약품, 드럼 등-을 트럭에 옮기는 일을 했다. 트럭에 옮기면 어디론가 실어 날랐다. 나중에 그게 바다에도 갔고 산에도 묻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파이프들은 다 석면에 둘러싸여 있는 채였다.

■ 막달리나 마요 : 60세, 여성. 석면 중독. 기지 안의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다. 기지 안에는 500여 명의 여성들이 일했다. 주로 석면을 보관하는 곳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된 곳이었다. 한번은 약품이 담긴 병들이 깨진 곳을 청소했는데 그곳에 있던 미국인들은 모두 내보낸 채 필리핀인들만 청소를 했다. 청소를 하고 나서 몇 명은 쓰러졌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자 미군들이 6개월 동안 쉬라고 했다. 약도 어떤 처방도 없었고 그냥 쉬라고만 했다. 어떤 물질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석면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몸이 계속 아프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에 석면이 발견되었다.

수빅과 클락의 독극물 오염에 관한 연구

수빅과 클락에서 발생한 독극물에 중독된 희생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미 미군 스스로도 기지시설에서 환경적 고려 없이 군사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엔지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한 정부도 나름의 목적-수빅, 클락 지역의 투자유치, 관광지 조성 등을 위한 기초 조사-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수빅의 19개 사이트, 클락의 27개 사이트가 독극물로 오염되어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

선행된 주요 환경, 건강 연구조사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¹²⁾

- Potential Resoration Sites on Board the US Facility, 1992 - 미 해군 리포트
 - 미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트레이닝 지역과 사격장 등 28개 사이트에 잠재적 오염이 나타남
- Military Bases Closure : US Financial Obligation to the Phillipines , 1992 - 미 회계 감사원(US 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 GAO)
 - 지하보관 탱크들의 누출방지 설비 부족
 - 화기전투 훈련시설들에 배수 시스템이 없음

12) UP Against TOXICS가 2000년 자체 조사한 '클락 기지의 독성물질의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 에 정리된 기존의 연구조사 내용과 필라 발도나도의 설명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 화기전투 훈련에 사용된 연료와 화학물들이 땅과 물 표면으로 직접 침투되고 이는 수빅만으로 바로 흘러감.
- 수빅만 해군 시설은 완전한 위생하수 시설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음
- 수빅 선박수리시설의 샌드블러스팅(모래를 분사해 선박등의 표면을 연마하는 방법) 사이트에서 나온 납과 다른 중금속들은 바로 수빅만으로 흘러들어갔거나 매립장에 묻힘
- 수빅만의 해군기지의 발전소에 폴리염화비페닐(PCB)이 저장되어 있고 오염물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공기 중으로 분출됨.

■ Subic Ba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Investigation, 1993 - WHO

- 독석화학물질, 연료, 농약, 제초제, PCB, 염소처리용매(chlorinated solvents), 폭발성 물질 등을 보관하였거나 사용하여 오염이 잠재된 곳에 대한 리스트 만듬
- 대규모의 엔지니어링 기능과 샌드블러스팅과 같은 시설에서 위험한 폐기물을 발생함
- 위험한 물질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매립함
- 산업폐수, 처리되지 않은 오수, 오염된 storm water가 처리 과정 없이 모두 수빅만으로 흘러들어감.

■ An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Report on known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at Former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1994 - P. Bloom et al¹³⁾

- 전(前) 미군기지의 다음의 장소에 독극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사이트 발견
 - 수빅 : 위생매립장, 수빅 발전소, 샌드블러스팅 작업장, 옛 쓰레기장, 지하에 보관된 탱크, 들, 철물 shop, 탱크 저장소, 건축용 목재 보관처리 시설, 연료 저장소, 사격훈련장, Cubi Power Poinr, 재활용처리장
 - 클락 : 수리룸, 군수품보관 작업장, 클락-수빅 POL(Petroleum oil, lubricant) 수송관, 석면 매립장, Phil Rock Products compound

■ Healt Survey(Clark), 1996 - Dr. Roslie Bertell¹⁴⁾

- 클락 기지 주변의 13개 마을의 761명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이 지역 여성들의 신장 병과 신장기능 이상의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명백히' 폐기물과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것과 관계있다고 밝힘.

■ Environmental Baseline Survey and Environmental Quality Survey of Subic, 1996 - Woodward - Cycle Consulting Firm¹⁵⁾

13) 미국 메나소타 대학의 토양학 박사, 94년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필·미 연합 Filipino American Coalition for Environmental Solution 의 요청으로 미군 기지 조사 실시.

14) 캐나다의 의생태학자. 기지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던 미국인들의 지원으로 PTFFBCU는 버텔 박사를 초청하여 기지 주변마을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5) SBMA가 월드뱅크의 기금을 받아 실시된 이 연구조사 결과는 외국인 투자시설로 지정하려는 싸

- 수빅 매립장 등 여러 매립장에서 석면을 포함한 위험한 폐기물을 발견함
- 개발 이전에 복구해야 할 10곳의 사이트가 있고 더 조사해야 할 13개의 사이트가 있다.
- Environmental Baseline Study and Soil and Water Baseline Study at Clark, 1997 - Westion International Consulting Firm¹⁶⁾
 - 8개 사이트가 기름과 석유 운할제, 농약, PCB, 납으로 오염됨(비행장과 모터풀 지역)
 -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에서 비소와 디드린(dieldrin)의 기준이 필리핀의 국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
-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US military Bases and the Serious Implication for the Phillippines, 1993 - Jorge Emmanuel
 - 미군은 필리핀의 느슨한 관리감독 환경을 이유로 위험한 물질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무시했다.
 - 필리핀의 미군 시설이 있던 지역중 심각한 건강상·환경문제가 연류된 사이트와 내용
 -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 금속, 독극물 용매재, 탄약 폐기물을 다루던 수빅의 산업과정
 - : 폭격 표적 역시 지반강화와 토양오염의 문제를 갖고 있음.
 - : 해안선을 따라 실시된 수중파괴, 박격포 훈련은 그린비치의 환경을 해칠 수 있음
 - : 토양의 어떤 오염도 수표면을 따라 흘러가 만을 오염시킬 수 있음
 - : 다양한 독극물은 플랑크톤, 물고기, 연체동물, 조개 등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따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기지 안의 오염된 지하수는 기지 밖의 지역(올롱가포 시 인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 클락 기지 주변의 약 40,700has의 농토는 토양과 지하수 속의 독극물 오염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음.
- Heavy Metal Study on Water, 2000.3 -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중금속의 흔적이 53개의 우물물(지하수)에서 발견됨

수빅과 클락의 오염된 사이트에서 발견된 독성화학물질들의 성분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¹⁷⁾

이트 들에 대한 독극물 오염은 인정하였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받아들이기 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낳는 이 조사결과는 SBMA에게는 계속된 투자유치의 명분이 되었지만 한편 으론 어쨌든 기지가 오염되었음을 보여주었고 투자 이전에 정화를 해야 할 할 사이트들을 언급하 기도 하였다.

- 16) 경제특별지구로 지정된 클락을 관장하는 클락 발전 협회(Clarck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CDC)
- 17) PTFBCU에서 제공한 자료 정리. 이 외에도 4,4'-DDT, Chlordane, Arsenic, Benzopyrene, Benzofluoranthene, Chromium, Dibenz[a,h]anthracene, Dieldrin, Mercury, Nickel, PAH(Polynuclear aromatics), Selenium, Trimethylenetrinitramine(RDX), Vinyl chloride가 발견되었다.

표4. 기지에서 발견한 주요 독성화학물질

오염물질	기지 내 사용용도(발견 장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Asbestos)	보일러의 단열, 지붕이나 벽면의 건축자재 (클락과 수빅의 매립장, 수빅의 선박수리시설)	폐암, 석면침착증(asbestosis 폐에 석면이 흡착) 흉막, 복막의 중피종암
폴리염화비페(PCB : Polychlorinated - Biphenyl)	전기전열제 (클락 발전소, 주물룸, 쿠비포인트의 사격연습장, DRMO 작업장, 클락의 모터폴 지역)	면역시스템 장애, 피부장애, 종양, 여성 생식기의 암 유발, 호흡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 PCB에 노출된 산모의 경우 저체중이나 머리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음
펜타클로로페놀(PCP: Pentachloropheenol)	탄약 장전시 사용되는 목재처리 (Naval Magazine)	간·신장·폐 손상, 중앙신경시스템과 위장 시스템에 영향, 다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할 수 있음.
Petroleum - Hydrocarbons :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Xylene-BTEX	연료혼합제 (수빅의 연료 저장소, 클락 수빅 POL수송관, Phil Rock Products compound, 클락의 비행장과 모터폴, 수빅병참시설의 탱크 저장소)	간·신장 손상, 비노기계통감염, 출산기능과 신경계 이상
벤젠(Benzene)	연료 혼합제	골수 이상, 염색체 이상, 백혈병 유발
Chlorinated Solvents (carbon tetrachloride, trichloroethylene, benzene)	cleaning에 다양하게 쓰임 (수빅발전소, 쿠비 파워포인트, 샌드블러스팅 작업장, SRF, 사격훈련장, 매립장, DRMO 작업장)	간, 신장, 신경계에 영향, 암유발 가능
카드뮴(Cadmium)	페인트 (매립장, SRF, 쿠비포인트, DRMO 작업장)	흡입할 경우 폐병 유발, 섭취하여 신장에 축적되면 뼈에 영향을 주고 혈관관련질병, 간, 암 유발 가능
납(Lead)	페인트, 연료(매립장, SRF, 쿠비포인트, DRMO 작업장)	어린이의 인식력과 운동신경 결핍, 만성신경장애, 뇌장애, 사지기능장애, 혼수, 경련(경기), 간기능장애, 불임, 유산과 태아사망
Organotonins	Anti-fouling agent, 페인트 (매립장, SRF)	신경시스템과 뇌에 영향을 줘 면역시스템의 이상을 가져옴

6. 환경정의를 위한 투쟁 - CLEAN UP US BASES!

cc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내의 기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지가 있는 나라 미국에서 환경단체들(The military Toxics Project 등)은 80년대부터 미군 기지를 미국의 가장 큰 오염자라고 규정하며 펜타곤에 그 책임과 정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군기지는 시설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폭발물질, 화학무기, 로켓 연료등의 군수품을 만들거나 보관, 테스트, 분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환경에 치명적인 물질들을 만들어 낸다.

이런 까닭에 미군은 미국의 화학물질 소비 시장의 13-16%를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 1986년 미군은 150 million pound의 CFC-113(cofluorocarbon-113, 프레온) 을 미국에서 사용했다. 89년 미 국방부는 약 900 million pound의 위험한 폐기물, 독성화학물질로 오염된 17 billion pound의 폐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658곳의 기름과 독성 쓰레기가 누출된 지역을 정화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⁸⁾ 이미 미국은 자국 내의 기지정화를 위한 비용으로 해마다 약 \$ 2 billion을 사용하고 있었다.

1993년 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환경정화프로그램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기지를 포함한 미국기지 시설 중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사용 중인 기지 시설들 1,722곳의 19,694 사이트, 폐쇄된 기지 시설 1,632곳 중 2,815 사이트였다¹⁹⁾. 모두 3,354곳 군기지 시설에서 22,509 사이트가 미군의 조사에 의해서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의 환경기준이 엄격하게 있는데도 심각한 오염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며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외국 기지에서는 더욱 심각한 오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곳으로 필리핀을 뽑았다. 이미 미 국방성은 이미 수빅 기지의 DRMS(D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Service)에 6만 갤런의 폐유, 화학물질 폐기물 등을 버렸다고 했고 92년 발표된 GAO 보고서에선 미군이 위험물질을 다룰 때에도 어떤 환경기준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91년 필리핀 기지 철수 결정 이후 미국 내에서 밝혀진 이런 사실들이 필리핀의 엔지오들에게도 전달이 된다. 특히 당시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미군의 필리핀 재배치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핵무기 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엔지오들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며 클락의 독극물 희생자들의 상태와 수빅 만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94년엔 미국과 캐나다 등의 엔지오들이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들어와 클락, 수빅 기지 일대를 조사하고 그 심각성을 언론에 발표하며 본격적인 기지 오염에 관한 활동들이 시작된다.

18) 『The Us Military'S Toxic Legacy』 , The Military Toxics Project, P2

19) 『The Depense Environmental Cleanup Program : Annual Repotr to Congress for Fiscal Year 1993』 , DOD, 1994 - PTFBCU의 문서에서 재인용

누가 책임 질 것인가?²⁰⁾

미군이 사용했던 클락과 수빅 기지에 대규모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희생자들로부터, 그리고 각종 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지만 미국 정부는, 또한 필리핀 정부조차도 때때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92년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때 “기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그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해 보겠다” 라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후 이 발언은 그냥 묻히고 말았다.

98년 미 국방부 차관 쉐리(Sherri W. Goodman)는 “필리핀 정부는, 미국이 필리핀에 이뤄놓은 발전에 대해 미국은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지정화를 요구하는 어떤 권리도 포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법에선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필리핀이 제안한 어떤 기금도 사용할 수 없다” 고 말하며 기지정화나 피해자 보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어 필리핀 외교부 역시 독극물 오염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이들의 항의를 받았다.

필리핀 정부는 2000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기지 안의 독극물 오염에 관해 인정하였다.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함께 참가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 5월 16일 필리핀 국회는 ‘1)수빅과 클락에는 미군의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와 위험한 활동과 작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2)미국은 기지와 미국의 영향 아래 이뤄진 활동들로 계속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건강,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할 합당한 의무가 있다’ 고 발표하며 미국정부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미국과 필리핀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국에게 제안하였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 2000년 7월 27일 필리핀과 미국은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협약을 맺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협약에는 전 기지의 오염문제는 빠진 채였다.

2000년까지는 그나마 필리핀과 미국 양 정부는 기지 오염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일 수라도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미국에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양 정부 사이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00년 8월 18일 기지 오염의 희생자들은 미국과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클락 기지가 있던 팜팡가와 수빅 기지가 있던 잠발레스의 지방법원에 낸 이 소송에서 희생자들은 미국정부에게 \$102 billion을, 필리핀 정부에게 \$1.1billion의 보상을 요구하며 미군기지에 대한 새로운 기초 조사와 희생자들에게 의료, 재정 지원을 할 것, 필리핀 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즉시 보상을 요구하고 미군기지를 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해 9월 13일 법원은 이 사안이 재

20) 주요 기록들은 『The responsibility of the u.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legacy of toxic waste at the former . Bases in the phillippines』 , Joins Ruth Remorca Mercado, P33 참조

판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당시 MBA에 기지철수 후 환경정화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지 정화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역시 그러한 규정이 없지만 미국은 캐나다에 기지정화를 위해 \$100 million을 지급하였다. 이는 캐나다가 똑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다. 사실 90년대까지 독일을 제외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제대로 된 환경조항이 갖춰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필리핀의 사례는 남한을 비롯한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캐나다, 그린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SOFA개정 작업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희생자들의 권리 찾기 - Alliance Bases Clean Up

현재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들과 함께 기지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Alliance for Bases Clean UP(이하 ABC)이다.

ABC는 엔지오인 PTFBCU(Peoples Task Force Bases Clean UP 미군기지정화위원회)와 클락 희생자들의 조직인 SAUP(Sama-Samangh Aksyon at Ugnayan ng Mga Pamilyan ng Biktima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한 공동행동)과 수빅 희생자들의 조직 YAKAP(Yamang Kalikasan Aming Pangangalgaan 자연자원보호)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²¹⁾ 이들은 2003년 부시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때 희생자들을 조직하여 마닐라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수빅과 클락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을 알렸다.

미군기지정화위원회는 기지의 환경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엔지오로 원래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에 속해 있던 단체다. 그러나 기지 환경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97년엔 분리되어 나와 지금까지 기지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세상에 알리고 필리핀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²²⁾

21) 물론 ABC외에도 깔리카산(Kalikasan)이나 그린피스 필리핀 등의 환경단체들과 평화, 인권, 여성, 건강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들도 기지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희생자들의 지원 등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한창 사회문제가 되었던 90년말 2000년 초에 비해 현재는 두드러진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수빅과 클락의 희생자들은 이미 많은 엔지오들이 자신들을 그들의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희생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의 펀드 에이전시들을 초청해 희생자들을 보여주고 나서 기금을 받은 뒤엔 희생자들을 외면하거나 자신들의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희생자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22) 현재 필리핀엔 두개의 PTFBCU가 있다. 나의 필드워크를 도와주었던 필라 발도나도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PTFBCU 외에 옛 이사진(특히 NO Nuke Asia 등의 국제단체들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화운동가로 명성을 갖고 있는 코라손 파블로 Corazon Fabro가 주 멤버)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PTFBCU가 있는데 이는 2001년 총회 선거를 둘러싸고 생긴 갈등으로 조직이 나뉘진 결과다. 2001년 2월 PTFBCU의 정기 총회때 수빅과 클락의 CO 멤버들은 4년간 선거 없이 명망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향해 선거를 통한 이사의 재선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두 CO는 자체 선거를 통해 희생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게 된다. 희생자들의 불만은 옛 이사들이 언론과 방문객들이 올 때만 나타나며 그들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

클락의 희생자들이 새로 이주해 간 마답팜에 위치한 SAUP 에는 희생자들의 가족인 활동가들이 지역의 희생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다. SAUP과 미군기지정화위원회는 현재 희생자들에 대한 새로운 도큐먼트 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든 희생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병상황과 현재 상태등을 모으고 있는데 이는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수빅 YAKAP의 모든 회원들은 전 기지 노동자들로 이뤄져 있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자녀들이다. YAKAP 역시 회원들에 대한 도큐먼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당시 기지안의 시설을 책임졌던 미국인 회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기지에서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가 석면중독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은 미국 법정에서 그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현재 1100여 명의 소송단을 모은 상태다. 이들 모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ABC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다. 클락과 수빅의 희생자들은 모두 필리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에도 시달리고 있어 불치에 가까운 병을 앓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약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ABC에선 기금을 만들어 이들의 치료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옛 이사들이 소송을 걸어 동결시킨 어린이 희생자들의 병원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 35,000\$와 410,000페소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결국은 죽는 일도 발생하였다.

소아마비 환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걷거나 말을 할 수 있게 정도는 할 수 있다지만 대부분은 치료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를 위해 ABC에선 가족들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1년에 두 세 차례만 이뤄지는 교육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정기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사업들도 모두 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사들을 선출하자 옛 이사들은 클락의 정수시설 설치, 어린이 희생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였고 새로운 이사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재판에 옛 이사진들이 계속 불참하여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희생자들의 대표로 꾸려진 PTFBCU의 새 이사들은 사무총장으로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밀라 발도나도를 선출하였다.

운동권내의 파벌이 강한 필리핀에서 특히 운동사회안의 명망가들로 구성된 옛 이사진과의 갈등은 결국 두 주민조직과 밀라 발도나도가 있는 PTFBCU의 대외적인 영향력, 물론 가장 크게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밀라 발도나도 개인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외국단체들과의 연대나 지원도 대부분 끊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밀라 발도나도는 2003년 'Breaking the Silence'라는 글을 관련된 사람들이나 미디어에 보내 그간의 분쟁에 대해 설명하며 다시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어느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테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희생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생각에 나는 밀라 발도나도가 일하는 조직에서 필드웍을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PTFBCU는 바로 이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7. 맺으며 - 끝나지 않은 싸움

다시 돌아온 미군

91년 상원의 투표로 기지연장이 거부되어 필리핀을 떠난 미군은 이후에도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ACSA) 등을 제안하며 여러 차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 ACSA는 거부되었지만 결국 98년 2월 10일 당시 필리핀 대통령 에스트라다에 의해 새로운 협정인 Visiting Force Agreement(이하 VFA)를 맺고 미군이 필리핀에 다시 올수 있도록 하였다.

VFA는 비록 미군기지가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군사훈련을 위해 필리핀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7장에 불과한 간단한 문서인 VFA엔 방문한 미군과 미군속의 지위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은 있지만 이전 MBA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역할이나 지위는 명기되어있지 않다.

물론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필리핀의 카톨릭 주교단, 운동단체, 그리고 일부 상원들도 거센 반대를 하였지만 이 조약은 승인되었고 미군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필리핀에 돌아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나 군사훈련의 목적이나 기간, 방식, 원칙 등은 VFA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VFA 아래 처음 실시된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모의전쟁훈련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세 명의 민간인이 죽었지만 미군은 이 사고가 공무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VFA에 의거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은 그 훈련이 끝난 뒤에도 아직까지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무장세력, 신인민군 등과 정부군의 분쟁을 조정하고 필리핀 군을 트레이닝한다는 이유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다시 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바얀의 리파는 VFA의 목적과 미군이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²³⁾

“MBA 역시 운동가들이 반대하였지만 시간이 부족하였다. 기지가 아닌 단지 방문이라고 하지만 벌써 민다나오에는 미군들의 시설이 있다. 더 나빠진 것은 MBA아래 미군함대는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오직 수빅과 클락에만 있던 미군들이 이제는 수빅 뿐만 아니라 세부, 일루일루, 다바오 등 필리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MBA의 목적은 단지 필리핀 군대를 트레이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필리핀 군대도 원하지 않는다. 필리핀 군대들은 매우 자존심상해하고 있다. 군대가 현대화되지 않은 것이지 필리핀 군인들이 총을 잘 못 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군이 돌아가지 않고 민다나오에 계속 있는 것은 미군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다나오에서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민다나오의 풍부한 자원과 General Santo의 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 공항은 하루 두 대밖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23) 2004년 6월 5일 바얀 사무실에서 인터뷰 진행

이 공항을 미군의 공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민다나오에 기지를 만들어 중동과 중국, 한국 등을 컨트롤 하고 미국 상업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항로(Sea Lane)을 컨트롤 하려 한다.”

또한 필리핀의 해군 준장과 미 국방부 대표에 의해 는 2002년 11월 24일 2002년 11월 24일 Military Logistic Support Agreement(MLSA)가 체결된다. 이는 미군부대가 필리핀에서 전쟁훈련을 할때 필요한 물자와 시설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필리핀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테라와 다른 군사 작전을 위한 물자제공처로 필리핀을 사용할 수 있고 기지가 아닌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설비가 가능하며 탄약, 음식, 물, 연료와 같은 물품의 보관이나 막사, 교통, 통신, 의료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이 조약은 아직 5년의 유효기간으로 사인되었지만 필리핀 정부는 곧 이 조약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인다.

‘방문’ 과 ‘지원’ 이라는 두 조약으로 분리되긴 하였지만 실제 이 두 조약만으로도 미군은 필리핀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머물거나 움직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빅과 클락의 오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지 안에 여기저기 방치되었던 폐유나 독극물이 담긴 드럼통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길모습만으로는 수빅과 클락은 새로운 상업도시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수빅 기지의 시설들도 다시 조선소로,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계 최대 운송회사인 Federal Express는 수빅 항을 아시아 최대의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5월달 방문했을 때 미군의 항공모함이 수빅 항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클락 기지 안에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중엔 한국인들의 비닐하우스 농장도 있다.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어 출입이 금지된 사이트 바로 옆에 한국 기업인 풍산기업이 들어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SBMA와 CDC는 수빅과 클락의 넓은 땅과 기초시설, 값싼 임금을 선전하며 해외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리핀 곳곳에서 두 지역에 대한 광고판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어떤 지역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과거엔 어떻게 이용된 곳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클락 안의 캄콕은 여전히 폐허로 남은 상태이며 수빅의 DRMO 사이트 역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앙헬레스와 올롱가포는 여전히 술집과 매매춘 거리로 유명하며 이제는 새로운 고객인 유럽과 아시아의 비즈니스맨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기지는 떠났지만 기지의 흔적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내가 만났던 희생자들 중에 그동안 벌써 두 사람이 죽었다. 에이페 원주민으로 DRMO 사이트에서 일하다 폐암을 얻었던 롤란도 할아버지는 내가 만난 지 며칠 뒤인 3월 30일 돌아가셨고 수빅의 병원에서 만났던 백혈병에 걸렸던 제스퍼도 만난 지 한달 쯤 뒤인 5월 6일 5살의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 백혈병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눈까지 멀고 있던 제스퍼는 아

프긴 했지만 자기를 보러온 손님들에게 여느 필리핀 아이들처럼 노래와 춤도 춰 보여주던 그런 개구쟁이였다. 제스퍼의 부모는 수빅 기지 안에서 일하였는데 실제 기지가 있던 시절 보다 기지 철수 이후에 일한 기간이 더 길다. 따라서 현재 기지 안의 많은 공장이나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4 월에만 세 명 5월에는 두 명의 희생자들이 죽었다고 한다. 물론 이 숫자는 ABC의 회원으로 활동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들에 한해서다. 실제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기지가 철수되고 기지의 환경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여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조사로 기지 주변 사람들의 병이 기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고 필리핀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지만 그 이후의 대책은 아직 마련된 게 없다. 아직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곳도 있다. 특히 대규모의 폭격훈련이 이뤄졌던 팜팡가의 크로우 밸리 같은 곳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 대부분의 환경조사가 사람들이 거주하였거나 상업적 가치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옮겨다니며 지속적인 오염을 일으킬 중금속과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정화와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비극은 계속 세대를 바꿔가며 계속 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군기지

한반도에는 2003년 기준으로 37,489명의 미군이 100여개의 기지시설에 주둔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은 필리핀과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일어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전 미군은 12,500명의 주한미군감축계획을 밝혔다. 주로 지상군을 감축하고 기동성이 큰 스트라이커 여단 등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의 감축대상이 될 미 2사단이 주둔한 동두천 일대에는 지금 기지 철수 이후에 일어날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비단 동두천 뿐만 아니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 기지나 또 새로 미군기지로 신설될 지역 모두 이러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감축이나 LPP모두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모두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소파에 부분적으로 환경조항을 넣긴 하였지만 토지반환 과정에서 얼마만큼 시행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곳곳에 대규모 부대나 기지시설을 갖고 분쟁을 만들어가는 미국의 존재는 전 세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국주의나 다름없는 미국과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미군의 실체를 알리고 그들의 군사적 야욕에 대항해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곳 필리핀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와 싸우고 과거를 증언하는 희생자들이 있다. 이들은 당신들이 겪은 역사가 다시 이 세상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상

황은 전 세계의 미군기지가 주둔한 나라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

희망을 일구며

녹색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지구크기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 는 말이 있다. 환경문제는 지역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 세계를 포괄하여 바라볼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실제 실천해 나갈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군문제도 환경문제와 똑같다. 한국에서는 동두천, 의정부, 서울, 파주, 춘천, 대구, 군산, 평택 등 주요 도시에 미군 기지들이 분포해 있다. 처음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이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국단위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조직하고 펼쳐나가려는 연대체가 꾸려졌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좀 더 넓혀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군재배치 계획을 세우며 자신들의 전략전술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만의 미군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에 맞서 싸우는 각 지역의 활동가들의 연대만이 진정한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글의 시작에서 얘기했듯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배경,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 필리핀에 주둔해 있던 미군기지, 기지가 떠난 후 발생한 참혹한 환경재앙, 재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 다시 필리핀에 돌아오려고 시도하는 미군 등은 비단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일본의 이야기기도 하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연대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그래서 미군이 떠나간 뒤 발생한 필리핀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나라에서 그러한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다.

우리가 필리핀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 값비싼 희생을 치른 필리핀에 대한 수업료를 내는 것이다. 몸으로써 참상을 일깨운 그들과의 연대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함을 느낀다.

수빅과 클락의 희생자들을 만나고 필리핀의 미군기지에 대해 보고 들으며 내 마음 속에는 내내 대체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희망이 존재하기는 한건가라는 의문을 많이 품었다. 기지정화는 차치하고라도 절대적인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찾을 길은 없는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연민이어서는 안 됨을 느낀다. 우리는 필리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점에 대한 당연한 비용을 연대의 관점에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서는 안 됨을 깨닫는다. 희망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속에서 일구어내는 것임을 이번 과정을 통해 깨닫는다.

아시아 민중들의 삶속에 들어 있는 희망을 함께 일구어내는 일, 그것이 이번 아시아엔지오센터 교육을 수료하며 내가 배운 점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미국의 제국주의 :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권오신, 문학과 지성사
- 『The Bases of Our Insecurity』 Roland G. Simbulan
- 『Fact Book :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 , Foreign Service Institute
- 『Emperors in the Jungle』 , John Lindsay-Poland, Duke University Press
- 『The Threat at Home』 , Seth Shulman, Beacon Press Boston
- 『Political Leadership, Decision making, and the Senate Rejection of the RP-US Bases Treaty on 16 September 1991』
- 『Politics&Society』 Center for Social Policy and Public Affairs,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Inheritors of The Earth』 ,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

■ 보고서

- 『KASARINLAN』 vol 3, 12, 17, The Third World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The International Grassroots Summit on Military base Clean Up』
- 『Toxicity pathway of Toxic and Hazardous Wastes Within and Around the Former US Military installation in Clark Field, Pamoanga, Philippines ; An Environmental Study Mission』 , UP Against TOXICS
- 『The Us Military'S Toxic Legacy』 , The Military Toxics Project

■ 논문

- 『The responsibility of the u.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legacy of toxic waste at the former . Bases in the philippines』 , Joins Ruth Remorca Mercado

■ 기타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에서 발표한 성명서, 보도자료, 문서 자료 등